



GP Indonesia 김 화 수 선교사

☞. Sariwangi Asri X, No. 8, Kompleks Sariwangi Asri, Kel.Sariwangi,
Kec.Parongpong Bandung Barat, Indonesia

//Tel: +62-22-8202-5858//hp)62-812-2194676//E-Mail: estherhsk@gmail.com

살롬 ~

매일 쏟아지는 비로 인해 차분하다 못해 깊이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금 끌어올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으려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아갑니다. 기나긴 우기를 지나고 있는 요즈음 어쩌다 짙고 해라도 비추이면 날아갈 듯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빛을 따라 소망을 따라 희망의 날개를 펴고 길 떠나 봅니다.

고국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로 인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비구비 이리저리 소용돌이 치며 다가오는 날들이 개인적으로도 버겁게 느껴지는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거 같은데 무어가 그리 급한지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의 마지막 날들이 그렇게 다가와 눈앞에 미련 없이 펼쳐지네요. 이 시간 우리 삶에 모든 것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종국에는 그 분 뜻이 이루어지고 오직 주님 그분만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이기에 아멘! 할렐루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대통령 '쁘라보워'가 10월 20일 취임한 후 벌써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지만 적당한 타협과 조절 능력을 잘 발휘하는 듯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시적으로는 큰 혼란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시작된 기독교계의 성탄 행사와 감사 및 축하예배는 12월24~25일 절정을 이루고, 연말 연시를 넘어 간혹 1월까지도 진행되고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성탄예배 및 축하행사들이 오직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집 ~

여전히 바람 잘 날 없는 은혜의 집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네요.그깃 바람쯤 불어와도 괜찮아 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며 용기 내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베이비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리아, 그레이스, 레스타리...**, 생후 4일째 되던 날 은혜의 집 식구가 된 '글로리아'는 어느 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글로리아는 제게 기쁨과 에너지를 더해 주는 복덩이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은혜의 집에 오게 된 '그레이스'가 이제 생후 2주가 되었네요. 마치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인형처럼 작디 작은 이 아이는 아무 것도 몰라라 하고 깊은 잠에 빠져 들어 가느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모습...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왜 그리도 기막힌 사연을 많이 안고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언제나 온전히 실행치 못하고 제게 숙제로 남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이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과 욕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가다가 쓰러지면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 가던 길 계속 갈지라도 또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사랑을 실천함에도 헌신과 희생,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결코 쉽지 않을 길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은혜의 집 아이들 4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이미 장학금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기독교 대학으로부터 받았고,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은 같은 대학에 등록하였는데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내년 3월에 국립대 음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어 아이들이 형통하게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진출한 아이가 2명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친히 그 능력의 큰손으로 보호하시며 사회에 잘 적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한층 더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및 여러 장소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할 때 연주 및 성탄 캐롤, 찬양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 분주함이 더해진 12월입니다. 바쁜 중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탄의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마음 깊이 새기는 날들이 되기를,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원에 다니던 리베가 지난 10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앞으로 회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잘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저희 사역에 전적으로 동역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스와띠도 지난 10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화여대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들 가는 길에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쳐 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관 보수 공사~

10여년 동안 선교관 외벽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지내 건물이 많이 낡아 보였는데 한달 여 동안 외벽 페인트 및 비가 새는 부분을 고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군을 한 두명 고용하기도 했지만 4층건물을 페인트 칠하는 것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여겨 자꾸만 일군이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 많이 난감하였는데 은혜의 집에 건축 및 토목공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 많은 부분을 은혜의 집 아이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많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함께 할 때면 상당히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철 사다리 스카폴딩을 렌트하여 유튜브를 보며 조립하고 고정시키는 방법을 배워 일하는 아이들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학교 공부가 끝난 후 그리고 토요일 학교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선교관에 모여 함께 일을 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한 달여간 육신은 고단했지만 보람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2024년 또 한 해를 떠나 보내야 하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은혜도 넘치고 위로도 넘쳤던, 기쁨과 고난이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찾아와 친구하며 지냈던 외로울 틈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올해 은혜의 집 아이들 11명과 함께 한국 방문을 하며 여러 귀한 동역자님들과 교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여 주신 단기팀들과 함께 사역하고 섬기며 받았던 은혜와 사랑, 위로도 흘러 넘치도록 깊고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만 지속된다면 그건 싱거운 삶일까요? 저에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늘 저의 삶과 사역 속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찾아 온 현상이라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찾아 온 듯 했습니다. 무언가 사고력이 마비된 듯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글도 쓸 수 없었으며, 누군가에게 꼭 표현해야 될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릴없이 몇 개월을 흘러 보냈습니다. 로템나무 아래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삶에서 매일 어김없이 감당해야 될 육체적 노동은 할 수 없었지요... 그런 상태라라도 다른 쉴 곳을 찾아 서성이거나 헤매이지 않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 당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부드러운 손이 제 마음과 몸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을 외치면서 다가오는 날들도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또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한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에 믿음의 친구 되어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귀한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 그리움을 전하면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동역자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아래 늘 강건하시고 승리의 삶 누리소서 ~

2024년 12월 25일 인도네시아 김화수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

1.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라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2. 2024년도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4명의 은혜의 집 아이들의 발걸음을 지도해주시고, 조나단과 아멜이 마라나타 기독교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과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도록, 하나와 가르만이 국립대인 우비대학교 음대에 합격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3. 2025년 새학기에 은혜 유치원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충성 되고 신실한 실력 있는 교사를 보내주시도록,

4. 은혜의 집 아이들이 예배와 기도회 및 공동체 삶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개개인이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삶과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며 어떤 환경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사춘기시절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지나가도록.

-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사회생활과 직장, 하나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 아이들과 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 약기 연주를 포함해 모든 일에 진보를 이루며 좋은 열매를 맺도록.

- 은혜의 집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소명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5. 주께서 주신 물질과 생필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다족 사람들과 예배 처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잘 나눌 수 있도록...

6. 영육간 회복과 당뇨 증상 및 몸의 연약한 부분등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도록.

7. 혼자 계시는 97세의 연로하신 어머니가 늘 강건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및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생을 보내시며 저와 이곳 사역을 위한 가장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로 계속하여 사용해 주시도록.

8. 새해에도 저를 사용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하나님께 영광 !!

지난 한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기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새해 맞으소서 ~

